

근대 미국 도시미화운동의 조경사적 의의

박근현*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포디즘(Fordism)의 시대였던 20세기 중반부를 지나면서 많은 도시들은 산업의 교외화와 외연적 도시 확산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었다. 이후 포스트 포디즘 시대를 맞은 세계는 다시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첨단 기술 산업·서비스 산업 등이 도시 내로 입지하면서 광범위한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Storper and Scott, 1989).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부터 도시 재생 사업과 이에 대한 논의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필두로 하여, 한강 르네상스 사업,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의 다양한 사업들, 지방 도시들의 도시 재생 사업 등이 계획·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세계 각 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들은 20세기 초 다니엘 번햄(Daniel Burnham)이 주도한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을 연상시킨다. 도시미화운동은 환경의 물리적 개선과 사회의 도덕적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 생겨났으며, 전 세계의 도시계획 및 설계를 태동시킨 모태로 여겨진다(Hall, 1996). 또한, 이 운동은 움스테드 등의 조경가를 통해 근대의 공원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Wilson, 1989).

도시미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사와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¹⁾. 반면 도시미화운동이 조경에 미친 여러 영향에도 불구하고 조경 분야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기존의 조경사 연구는 주로 조경의 결과물인 공원과 정원에 집중해 왔다. 특히 근대의 경우, 움스테드라는 한 인물과 그의 작품에 집중하여(조경진, 2003)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 운동이 근대 조경의 형성 및 오늘날 조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미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미화운동에서 조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 조경에 대한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도시미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미국 도시사에 있어서 1890년대는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남미와 유럽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인종적·문화적 이질성이 증대된 결과 도시는 점차 무질서의 위협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당시의 도시 문제는 주택 문제, 위생 문제 등의 환경 문제와 부정부패, 범죄 증가 등의 도덕성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정치인, 상인, 지식인 등 부르주아들은 도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도시 사회 조직의 보전을 당면 과제로 보기 시작하였다(Hall, 1996).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시 미국 중상류층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혁신주의(Progressivism)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미화운동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은 '혁신주의 시대'로 불린다. 이 시기에 독점 규제와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이 그 기본적 가치와 체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재정립하였기 때문이다. 주로 정치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사가 주체가 되어 독점 규제, 식료품 및 의약품 안전, 주택법, 노동법, 선거법 등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와 윌슨(Woodrow Wilson)의 개혁에서 이 운동은 그 정점에 이른다(이보형, 2005). 혁신주의 운동은 그 선언과 실행 과정이 서민 친화적이고 개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민심을 잡는데 유리하였다.

혁신주의 운동과 달리, 도시미화운동의 추진 주체는 기업인, 중소상인, 공장 경영자 등 주로 도시의 경제적 측면을 담당하는 집단이었다(서충원, 2004). 그리고 도시계획가, 건축가, 조경가가 이론적·실천적으로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들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로 도시의 미관과 도시 정체성이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파리와 같은 세계적 문화 도시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두 운동은 각기 다른 집단이 주도했을 뿐 아니라 철학과 이해관계가 대치되었다(박진빈, 2002). 운동의 진행은 도시에 따라 달랐는데, 예컨대 정치 세력이 집중된 워싱턴과 뉴욕 등의 도시에서는 혁신주의 운동이, 경제 세력이 보다 강력한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의 도시에서는 도시미화운동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운동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며 종종 조응하기도 했다. 특히, 운동의 추진 주체가 도시 엘리트 집단인 점, 즉 위로부터의 도시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개혁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가진 사회 지도 세력이라는 계몽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개혁 대상인 도시 조직들, 특히, 도시 빈민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들을 개화되어야 할 대상 정도로 여겼다. 이러한 일방적 관계 설정은 결국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도시미화운동의 전신이자 형태적 모티브라 할 만한 사건으로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들 수 있다. 콜럼버스의 미국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시카고 세계 박람회는 총감독관 다니엘 번햄의 지도 아래 조성되었다. 시카고 박람회장은 하나의 도시(White City)로서 사람을 압도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장소였다(Larson, 2003). 당시 빈곤, 비위생적 주거, 인종 분리 등의 도시 문제를 안고 있던 시카고 시민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박람회가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화이트 시티는 하나의 도시 건설에 있어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건축가, 조각가, 기술자, 화가, 조경가 사이의 협력을 보여 주었다. 이곳에서 조경은 백색 도시와 상반되는 자연, 즉 황야(wilderness)의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박람회장장의 조경 감독인 옴스테드에 의한 도시와 조경의 관계 설정은 이후 도시미화운동에서 조경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친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가 끝난 후, 미국의 도시 지도자들은 박람회장장에 건설된 것과 유사한 상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후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계획들이 수립되었다(Hall, 1996). 번햄은 시카고를 비롯해서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등지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도시미화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1910년에서 1935년 사이에는 영국 식민지에서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파시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극단적 양상을 보인다. 무솔리니 치하의 로마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2천여 년 간 지속된 흔적을 대부분 제거하였다. 독일 나치 정권의 경우, 베를린을 준종교적 공공 의식을 위한 결집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중세 때 형성된 도심부를 파괴하기도 했다. 또한, 스탈린의 소련,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기념비적이고 인상적이며 장식적인 건축물이 간선도로 전면에 배치되고 슬럼지역은 뒤편으로 숨겨졌다.

도시미화운동은 매우 다양한 경제·사회·정치·문화적 환경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도구로서,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서, 전체주의의 시녀로서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 표현되어 왔다. 대상 도시들의 공통점은 자본이든 정치든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념비적인 것, 외관적인 것, 그리고 공원 체계와 건축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계획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매우 결여되었다. 이처럼 '보여 주기 위한 연출'로서의 건축과 조경 설계는 그 연출의 무대에 살고 있는 관객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불만은 주택문제 등 보다 실용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도시실용주의(City Practical)로의 이행을 촉발시켰다.

III. 도시미화운동과 근대 조경

도시미화운동은 그 목적이 “잃었던 시각적·미적 조화의 회복과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공간의 창출(Hall, 1996: 214)”라는 점에서 조경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시미화운동과 근대 조경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옴스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 조경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가 도시미화운동의 태동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1. 옴스테드의 공원관과 시카고 박람회 조경

옴스테드와 도시미화운동의 인연은 번햄의 시카고 박람회장 조성에서 시작된다. 시카고 박람회의 총감독이었던 번햄은 박람회장 조경 감독으로 옴스테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조경 감독직을 제안한다. 당시 나이가 70세에 가까웠고 병으로 고생하던 옴스테드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번햄의 간청과 그가 일생동안 꿈꾸었던 ‘예술로서의 조경’을 펼칠 기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인다. 번햄이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채택하고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려 내고자 하는 동안, 옴스테드는 미시간 호수의 숭고함(sublime)을 바탕으로 ‘신비한 시적 효과’를 연출하고자 한다(Larson, 2003).

옴스테드에게 공원은 악의 도시에 선의 자연을 제공하는 인간 회복의 한 방편이었다. 동시에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건강한 여가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주택 부족, 환경 악화, 범죄 증가, 도덕성 악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공원은 일종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다(조경진, 2003). 이러한 옴스테드의 공원관은 한 개 인간의 사고라기보다는 현실 도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 아래 많은 지식인들의 사회 개혁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옴스테드는 다기능적 공원 및 대로 체계를 설계하여 도시 조직과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그는 조경의 역할이 주변 지가를 올리고 도시민들에게 회복 및 여가의 기회를 주며 계급 화해 및 민주화를 낳는다고 봄으로써 도시미화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그는 조경가이자 도시설계가로서 도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윌슨(1989)은 옴스테드가 도시미화운동에 남긴 유산으로 크게 포괄적·통합적 설계 방식의 추구, 도시미화운동의 이데올로기 강화,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2. 미국 도시미화운동과 조경

1) 워싱턴 계획

1901년 워싱턴 D.C. 물 재건 계획은 미국 도시 내에서 공공기관을 집단화시킨 시빅 센터(civic center)를 만든 최초의 계획이

라고 할 수 있다(서충원, 2004). 랑팡(Pierre L'Enfant)의 초기 계획안을 수정한 워싱턴 계획안은 시카고 박람회에서 구현된 도시미화운동의 이념과 계획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계획에 참여한 조경가들은 6개의 주요 공공 건물이 상호 연결된 공공 공원 체계를 세웠다(Hall, 1996). 계획가들과 조경가들은 워싱턴 D.C. 물과 시빅 센터가 경계를 부흥시키고 시민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도덕적 개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워싱턴 D.C. 물 계획은 국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빈민들의 거주지를 대대로 단절시키고 열악한 주거지역은 정부 건물들로 대체되면서 저소득층의 생존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작 워싱턴에서 시급했던 재정 균형, 사회적·민족적 차별의 완화 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2) 시카고 계획

시카고 박람회 이후 시카고의 사업가들은 도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도시를 개조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09년 시카고 상인 클럽의 의뢰로 번햄과 베넷(Edward Bennett)의 시카고 계획안이 수립되었다(서충원, 2004). 번햄은 오스망의 파리개조계획을 모델로 하여 혼돈의 시카고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계획의 기본 개념은 “잃었던 시각적·미적 조화를 도시에 복구시킴으로써 조화로운 사회 질서의 출현을 위한 물리적 필요조건을 창출하는 것(Hall, 1996)”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은 새로운 간선도로를 만들고 슬럼을 제거하며 공원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이상과 순수 미학적 수단을 혼합한 것으로 평가받아 혁신주의 운동을 지지하던 중상류층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Hall, 1996: 214-215 재인용).

시카고 계획은 다음 네 가지 계획 목표를 달성하였다(서충원, 2004: 371). 첫째, 대각선 도로를 추가하여 기존의 격자형 패턴을 완화시켰다. 둘째, 예술적 초점을 도입하였다. 셋째, 신규 건물을 통합적으로 건축하였다. 넷째, 도시 지역의 다양한 지역을 통일시키기 위한 중심 테마로 분수 등의 물을 활용하였다. 예컨대 미시간 호안은 매립하여 산책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의회로는 폭 300피트의 공원을 가로질러 시카고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또한, 공공건물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공원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주택, 학교, 위생 설비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건축과 밀집을 요구하는 도심 부동산 개발의 현실과 조화되지 못하였다. 계획 실현을 위한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결국 시카고의 도시미화운동은 zoning 제도를 통해 성취되는 도시 실용주의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3) 필라델피아

20세기 초 필라델피아에서는 제 3당 개혁 후보의 시장 당선과 함께 개혁가 집단들이 효율적 교통망 구축이나 빈민 주거 개선 등 혁신주의적 개혁을 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도시 미관이었다. 도시의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는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도시미화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필라델피아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또는 명성을 더욱 드높이기 위한, 아름다운 도시의 건설이었다. 막 완공된 시청 앞에는 노들담 성당 앞과 같은 광장을, 세계적 규모의 페어몬트 공원을 시청까지 직접 연결하기 위해 샹젤리제와 같은 규모의 대로를, 그리고 그 대로변에는 파리의 거리를 수놓은 웅장한 신고전주의 형식의 건물들과 조형물들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박진빈, 2002). 이 시기 필라델피아는 오늘날까지도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벤자민 프랭클린 대로와 미술관의 건설을 이룩해 냈다. 하지만 도시미화운동을 겪은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화는 일반 시민의 삶, 특히 이민자와 흑인의 생활면에서는 별다른 개선을 촉발시키지 못했다.

IV. 도시미화운동의 조경사적 의의

조경사에서 도시미화운동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시미화운동의 시기에 상호 연결된 공원과 대로 체계가 조성됨과 함께 조경가의 전문적 컨설팅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도시미화운동에서 조경의 역할은 시빅 센터나 간선도로변의 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공원 간의 상호연결과 파크웨이 조성을 통해 도시의 열개를 이루는 공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거리에 시각 초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를 시각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움스테드는 시카고 리버사이드 단지계획(1868), 버팔로 공원 시스템 구축(1868~1876), 보스턴 녹지체계계획(1875), 그리고 나이가가라 폭포 보전계획(1887) 등 많은 도시계획·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조경의 입지를 넓혔다. 이후 도시미화 사업들에서 도시계획가, 도시공학자, 건축가, 조경가가 함께 작업하였으며, 이들이 만든 도시 체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부분 남아있다.

둘째, 도시 공원의 이데올로기가 성립되었다. 움스테드와 도시미화운동의 영향으로 20세기 공원은 주변 지가를 올리고 회복 및 여가의 기회를 주며 계급 화해 및 민주화를 낳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도시 중산층은 자산의 증가와 삶의 안락함을 누리며 저소득층은 작업장에서 느끼는 계급 갈등을 집회가 아닌 여가 선용을 통해 해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원이 자본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용의 측면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금지되고 잔디밭

에서의 피크닉과 수동적 휴식이 권장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상류 계층의 매너와 생활방식을 노동자 계층이 보고 배우게끔 하는 일종의 사회 통제의 메커니즘을 담고 있기도 하다(조경진, 2003).

셋째, 주택 문제 등 도시의 사회적 측면과 조경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도시미화운동가들은 도시의 미관과 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도시에서 슬럼과 열악한 주거지를 제거하기 위해 힘을 다했으나, 이곳에서 쫓겨난 빈민들에게 제공할 주택 마련에는 힘을 쏟지 않았기에 많은 빈민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주택 문제에 초점을 맞춘 도시운동들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도시미화운동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 이유는 계획을 통해 생겨나는 시빅 센터와 공원이 기업가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시미화운동은 주택 문제의 해결, 예를 들면 공공 주택 건립이나 슬럼의 환경 개선 등의 실현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

넷째, 독재적 정부 하의 도시에서 조경은 종종 기념비적 권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독재적 정부 지도자들은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라. 작은 것에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마법이 없다(Larson, 2003: 8 재인용)”라는 번햄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며 또 다른 ‘화이트 시티’들을 창조해냈고, 조경가들은 광대한 간선도로변과 중앙청사 앞 광장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등 지도자의 구미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조경의 목적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있기 보다는 기념비적이고 인상적인 설계안을 생산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조경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은 조경의 사회적 역할에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세계화되어 가면서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도시의 공간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재편성되고 있다. 다양한 조경 설계 대상지가 생겨나고, 조경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일종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은 조경의 ‘가치’와 ‘방향’을 되묻는 일이다.

우리는 앞에서 근대 도시미화운동이 조경에 적극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요구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도시미화운동과 조경의 관계는 오늘날의 한국 조경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조경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통합적·참여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이나

경관생태학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도시미화운동에 바탕을 둔 근대적 공원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원의 사회적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경은 ‘개발 정당화의 도구’이자 ‘화장술’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도시민의 삶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도시의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도시 재생에 대해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과 조경, 공공 디자인 등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만큼이나 시민들과 학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기성 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도시 부흥을 시도하거나 성장 관리의 측면에서 도심부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김영환 등, 2003). 도시미화운동은 우리에게 디자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도시 공간과 도시민의 삶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주 1. 대표적인 연구로 Wilson, 1989; 김홍순과 이명훈, 2006; Jacobs, 1961; Hall, 1996; Marcuse, 1980; Boyer, 1983 등을 들 수 있다.

인용문헌

1. 김영환, 최정우, 오덕성(2003)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기본전략 및 계획요소, 국토계획 38(3): 85-97.
2. 김홍순, 이명훈(2006) 미국 도시미화 운동의 현대적 이해: 그 퇴장과 유산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87-106.
3. 박진빈(2002) 보수적 도시개혁과 빈민정책의 한계: 20세기 초 필라델피아 혁신주의 정부하의 개혁운동, 미국사연구 16: 159-186.
4. 서충원(2004) 도시개혁사조로서의 도시미화운동,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서양도시계획사, 서울: 보성각, pp. 355-386.
5. 이보형(2005) 미국사개설, 개정판, 서울: 일조각.
6. 조경진(2003)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관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26-37.
7. Boyer, M.(1983) Dreaming the Rational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8. Hall, P.(1996) Cities of Tomorrow, 임창호, 안건혁(역),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0.
9.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10. Larson, E.(2003) In the White City, 양은모(역), 화이트 시티, 서울: 은행나무, 2003.
11. Marcuse, P.(1980) Housing in early city planning, Journal of Urban History 6(2): 153-176.
12. Storper, M., and A. J. Scott(1989) The geographical foundations and social regulation of flexible production complexes, in J. Wolch and M. Dear, eds., The Power of Geography, London: Unwin & Hyman, pp. 21-40.
13. Wilson, W.(1989) The City Beautiful Move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